

#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방안<sup>1)</sup>

최은영 연구위원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세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과 정보의 전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핵가족 중에서도 양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 안내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꼽은 어려움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부자 가정은 모의 부재에 따른 부의 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크다. 한편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크고, 새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와 재혼 가정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의 어려움, 부모교육 요구 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부모와 재혼 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언하였다.

## 1. 서론

가족구조의 변화로 전통적인 대가족은 거의 사라지고 핵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부모세대의 자녀양육에 대한 지식 전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핵가족 중에서도 양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증가하고 있어 전통적인 부모 역할에 대한 일반적인 부모교육 안내로는 한계가 있다. 부모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세계적으로 긴 노동시간, 부모교육 장소로의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다.

기존의 부모교육은 전업주부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교육이 대다수로 부모교육을 꼭 필요로 하는 집단의 경우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시간이 부족해서 기존 부모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모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부모교육과 관련한 정부의 유관 부처(여성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최근에는 노동부 등)가 각각의 산하기관(한국건강가족진흥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유아교육진흥원, 보육진흥원, 근로복지공단) 및 전달체계(각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학부모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부모교육

1) 본고는 육아정책연구소 일반과제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II):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을 중심으로(최은영·이윤진·김보미·장은미·김미옥, 2019)」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강사 양성을 하고 있음에도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이수하는 부모는 많지 않다.<sup>2)</sup>

2018년 통계청의 인구총조사 중 가구부문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의 한부모 가구는 2018년 1,539,362가구, 2017년 1,533,166가구로 2017년 대비 약 0.4% 소폭 증가하였고, 이 중 부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는 391,434가구(2018년 기준)로 모와 미혼자녀로 이루어진 가구(2018년 기준, 1,147,928가구)보다 적은 수치를 차지한다.<sup>3)</sup>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sup>4)</sup>에 의하면, 한부모 가정 중 모자로 구성된 가구가 51.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부자 가구(21.1%), 모자+기타 가구(13.9%), 부자+기타 가구(13.5%) 순으로 나타났다. 부자 가족의 경우 모의 부재에 따른 부의 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크며,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꼽은 어려움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인구 1000명당 발생한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의 추이를 보면, 1990년 중반부터 이혼건수와 이혼율이 크게 상승하기 시작하여 1995년 조이혼율은 1.5건에서, 1997년에는 2.0건, 1998년에는 2.5건으로, 그리고 2003년에는 3.5건까지 증가하였으나<sup>5)</sup> 2019년 기준, 조이혼율은 2.1건으로 1997년(2.0건) 이후 최저이다.<sup>6)</sup> 2018년 기준, 전체 혼인 건수 중 남녀 모두가 초혼인 경우는 전체 혼인의 남녀 모두 초혼인 부부는 전체 혼인의 77.6%, 남녀 모두 재혼은 11.9% 차지하고 있다.<sup>7)</sup> 재혼 가정의 경우,

가족관계,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크고, 새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본 글에서는 한부모와 재혼 가정 부모의 부모교육 참여 경험과 참여의 어려움, 부모교육 요구 등을 파악하여 특성에 맞는 맞춤형 부모교육 과정을 개발·적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한부모와 재혼 가정이 겪고 있는 양육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언하고자 한다.

## 2. 한부모 및 재혼 가정 현황

### 가. 한부모 가정 현황

김은지 외의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미취학 자녀(만7세 미만)를 둔 한부모들은 자녀 돌봄을 위해 보육시설이나 어린이 집을 이용하는 비율이 64.6%, 이어서 유치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21.5%로 시설보육 이용률이 86.1%를 차지할 만큼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본인이 직접 돌보거나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부모들이 경험하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은 ‘양육비’와 ‘교육비용 부담’이라는 응답이 82.3%(대체로 그렇다+매우 그렇다)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자녀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어려움’(71.8%), ‘자녀를 돌볼 사람의 부족’(70.4%), ‘자녀양육 스트레스’

2) 박원순·이재희·예한나(2018). 영유아 부모교육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범사업-맞벌이 및 아버지 대상 부모교육. 육아정책연구소.  
 3) KOSIS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A.1;&menuId=M\\_01\\_01&vwcd=MT\\_ZTITLE&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parentId=A.1;&menuId=M_01_01&vwcd=MT_ZTITLE&armTabId=M_01_01#SelectStatsBoxDiv)  
 4)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5) 통계개발원(2008). 한국의 사회동향 2008.  
 6) 나라지표, 2019. 8. 20. 인출.  
 7)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 2018년 혼인·이혼 통계. [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728](https://www.kostat.go.kr/portal/korea/kor_nw/1/1/index.board?bmode=read&aSeq=373728)에서 2019. 9. 30. 인출.

〈표 1〉 자녀돌봄 유형

단위: %(명)

연도	보육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조부모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민간 베이비시터	학습지/ 방문과의	친인척	본인 직접 돌봄	합계(n)
2018	64.6	21.5	0.5	3.7	0.3	0.2	0.1	-	9.1	100.0 (374)
2015	69.1	18.5	0.4	3.4	-	-	-	0.5	8.1	100.0 (350)
2012	60.0	22.2	-	8.7	-	-	-	1.4	7.7	100.0 (272)

자료: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p.54.

(68.2%), '양육, 교육 관련 정보 부족'(65.2%), '학습지도 어려움'(60.4%), '생활지도 어려움'(45.3%) 순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자녀 양육, 교육 관련 정보의 부족은 임시·일용근로자 또는 자영업·무급가족종사자가 다른 종사상 지위 응답자에 비해, 소득수준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부모가 된 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에 자녀 양육 및 교육관련 정보가 부족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sup>8)</sup>

한부모 가정 부모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양부모 가족보다 많은 시간을 노동에 할애하게 되고, 이는 양육자에게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양육행동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sup>9)</sup> 한부모 가정의 어려움 중 경제적 어려움 다음으로 꼽은 어려움은 부모역할 수행에 대한 부담감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특히 부자 가정은 모의 부재에 따른 부의 모역할 수행에 대한 어려움 호소가 크다.

## 나. 재혼 가정 현황

재혼 가족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는 아직 생성되지 않은 상황이며,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 부문의 혼인과 이혼 통계를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우선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을 살펴보면, 2018년 혼인은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년 대비 6천 8백건, 2.6% 감소하여 2012년 이후 연속적인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하는 조혼인율 역시 5.0건으로 200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sup>10)</sup>.

통계청이 내놓은 혼인건수를 기준으로 재혼 가족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 전체 결혼 건수 중 재혼의 비율이 22.4%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남녀 모두 초혼은 77.6%, 남자 재혼과 여성 초혼은 4.0%, 남자 초혼과 여성 재혼은 6.2%, 남성과 여성 모두 재혼은 11.9%를 차지하였다. 전체 혼인 중 재혼 비율이 남성은 16.0%, 여성은 18.1%로 나타났다. 통계청의 「혼인·이혼 통계」는 전국의 시·구청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한

8) 김은지·최인희·송효진·배호중·최진희(2018). 2018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9) 방진희(2004). 저소득 한부모 가정 청소년의 심리, 사회 적응향상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효과성 연구. 사회복지실천, 4, 113-142.

10) 통계청(2019. 3. 20.). 2018년 혼인·이혼 통계.

〈표 2〉 혼인 건수 및 조혼인율(2008-2018)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혼인건수(천 건)	327.7	309.8	326.1	329.1	327.1	322.8	305.5	302.8	281.6	264.5	257.6
증감(천 건)	-15.8	-18.0	16.3	3.0	-2.0	-4.3	-17.3	-2.7	-21.2	-17.2	-6.8
증감율(%)	-4.6	-5.5	5.3	0.9	-0.6	-1.3	-5.4	-0.9	-7.0	-6.1	-2.6
조혼인율	6.6	6.2	6.5	6.6	6.5	6.4	6.0	5.9	5.5	5.2	5.0

주: 조혼인율은 인구 1천 명당 혼인건수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보도자료(2019. 3. 20.). 2018년 혼인·이혼 통계, p.4.

혼인신고서의 내용을 집계한 결과로 사실혼과는 차이가 있으며, 사실혼까지 포함한다면 재혼가족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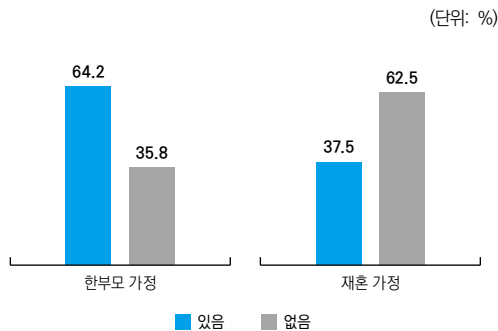
재혼 가정은 재혼 당사자인 부모, 재혼으로 인해 생긴 자녀와 부모, 그리고 자녀들 간의 역할과 유형이 다른 가정의 형태에 비해 다소 복잡하다. 재혼 가정 자녀의 측면에서 이들은 두 가구의 구성원이고, 친부모가 생존해 있거나 기억 속에 존재하고 있어 다른 가족유형보다 복잡하다. 특히 재혼 가정은 부모 자녀간의 유대가 배우자간의 유대보다 더 오래되었으며, 가족생활 주기의 불일치가 크다.<sup>11)</sup> 일반적으로 재혼 가정은 가족관계, 부모-자녀간 상호작용에 어려움이 크고, 새부모의 역할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 3. 한부모 및 재혼 가정의 부모교육 경험 및 요구<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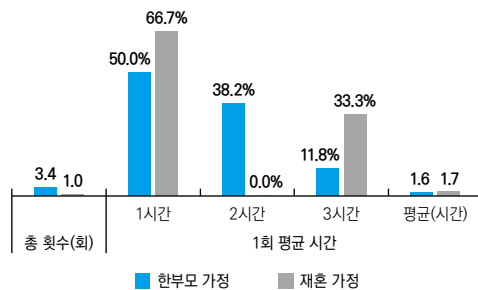
#### 가. 부모교육 참여 현황

##### 1) 부모교육 경험

한부모 가정에게 부모교육 참여한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4.2%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한편 재혼 가정은 전체 응답자의 37.5%가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교육에 대한 한부모 가정과의 경향 차이를 보였다. 한편 한부모 가정 중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



[그림 1] 부모교육 참여 경험



[그림 2] 부모교육 참여 횟수/1회 평균 시간

11) 정현숙·유계숙·임춘희·전춘애·천혜정(2000). 재혼가족에 대한 실태 및 재혼생활의 질에 대한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38(4), 1-19.

12) 최은영 등(2019)의 연구에서 한부모 가정 및 재혼 가정 부모들의 부모교육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조사의 결과임. 단, 한부모 53가구, 재혼가정 8가구가 응답한 결과로,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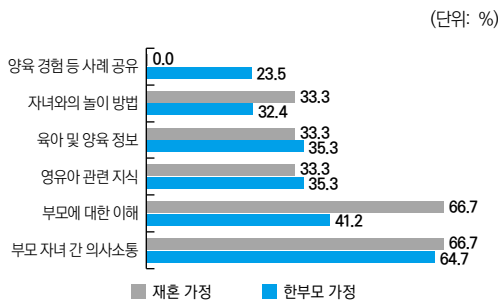
로 참여 횟수와 1회 평균 시간을 조사한 결과 평균 3.4회, 1회 평균 1.6시간으로 나타났으며, 재혼 가정 중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의 참여 횟수는 평균 1회, 1회 평균 1.7시간으로 나타나 1회 평균시간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났으나 총 횟수는 3배 정도 차이가 있었다.

## 2) 부모교육 내용 및 만족도

한부모 가정이 참여한 부모교육의 내용으로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의 비율이 64.7%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부모에 대한 이해(부모됨, 역할 등) 41.2%, 영유아 관련 지식(애착, 발달 등)과 육아 및 양육 정보가 각각 35.3%, 자녀와의 놀이방법 32.4%, 양육경험 등 사례 공유 23.5%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 가정에서 참여한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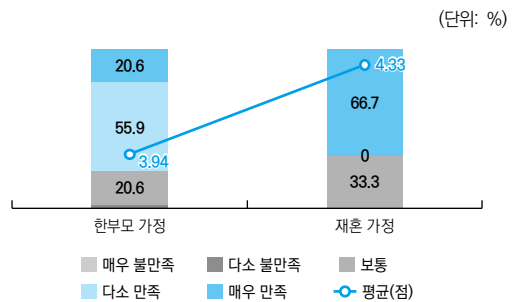
의 내용으로는 부모-자녀간 의사소통과 부모에 대한 이해가 각각 66.7%로 가장 높았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참여했던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3.94점(5점 척도)이었으며, 불만족하다고 응답한 비율도 2.9%로 나타났다. 재혼 가정의 경우, 만족도는 평균 4.33점으로 나타나 참여하는 비율은 낮지만 부모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다소 높은 경향을 보였다.

한부모 가정 중 부모교육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로 직장이나 가사로 인한 시간 부족 및 자녀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각각 36.8%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해서가 15.8%, 개인적인 사정 때문이 5.3%로 나타났다. 한편 재혼 가정은 개인적인 사정이 40.0%, 직장이나 가사로 인한 시간 부족,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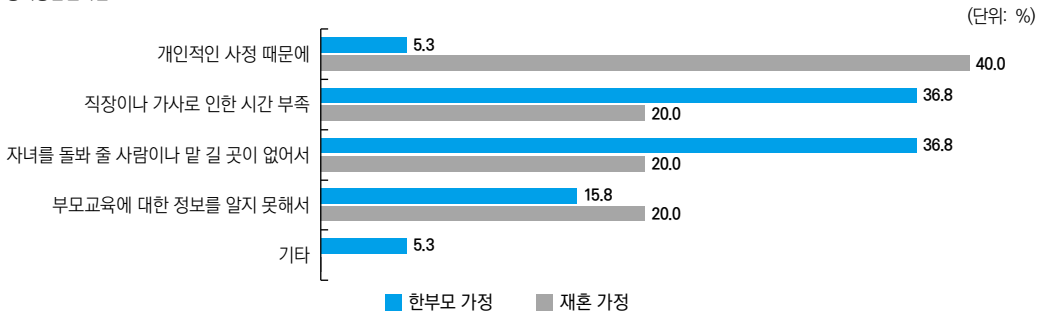


[그림 3] 부모교육 내용

주: 중복응답결과임.



[그림 4] 부모교육 만족도



[그림 5] 부모교육 미참여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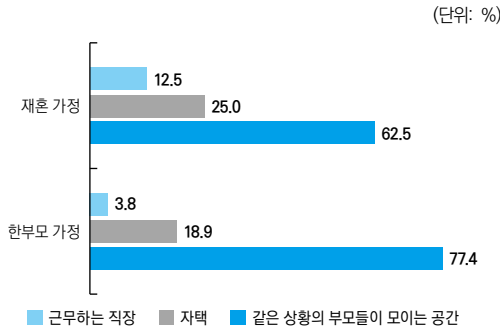
나 맡길 곳이 없어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없어서가 각각 20.0%로 나타나 재혼 가정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모교육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지 못하는 상황임을 유추할 수 있다.

### 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에 대한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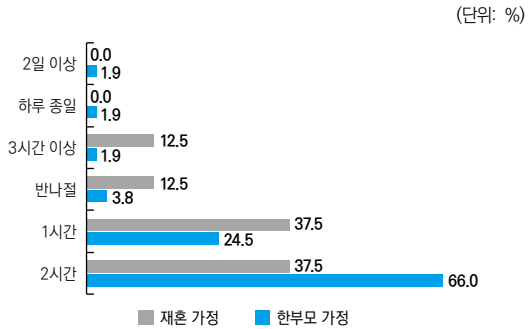
한부모 가정에게 부모교육 선호 장소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같은 상황의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77.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자택 18.9%, 직장 3.8% 순으로 나타났다. 영유아 자녀가 있는 경우 자택으로 응답한 비율이 다소 높았으며, 근무형태에 따라서는 불규칙적으로

출퇴근하는 경우와 무직인 경우 자택을 조금 더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재혼 가정 또한 같은 상황의 부모들이 모이는 공간이 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부모교육에 적절한 시간에 대해서는 2시간이 66.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1시간 24.5%, 반나절 3.8%, 3시간 이상과 하루 종일 및 2일 이상은 각각 1.9%로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2시간 정도를 적정시간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재혼 가정은 1시간과 2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7.5%로 나타났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가 응답한 부모교육의 적합한 교육 방식은 소규모 워크숍(경험사례 공유 등)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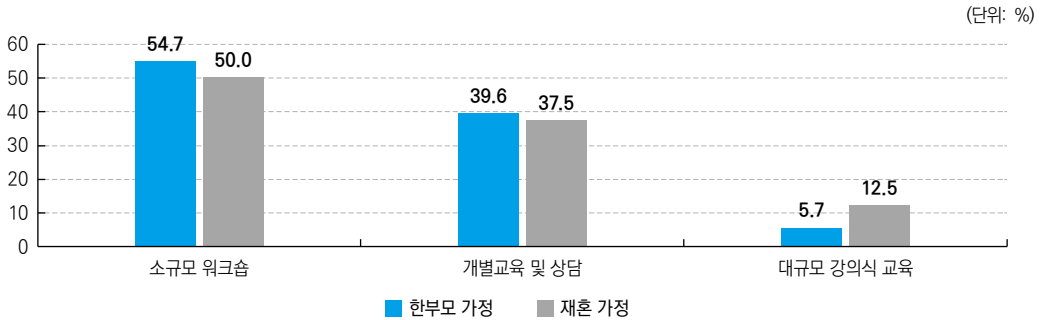


[그림 6] 부모교육 선호 장소



[그림 7] 부모교육 적정 시간(총 시간)

주: 중복응답결과임.



[그림 8] 선호하는 부모교육 방식

개별교육 및 상담 39.6%, 대규모 강의식 교육 5.7% 순으로 나타났다. 재혼 가정 역시 소규모 그룹 워크숍이 50.0%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정보나 지식을 전달하는 대규모 강의식보다는 경험과 어려움을 공감하고 나누는 방식을 선호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4. 한부모 및 재혼 가정 부모교육 활성화 및 정책적 지원 방안

### 가.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방안

첫째, 부모-자녀가 함께하는 활동 병행한다. 부모교육 프로그램 실행 중 부모가 프로그램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자녀를 돌보아 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부모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놀이시간이나 캠프프로그램 등을 통해 부모와 자녀 관계를 증진하는 교육 내용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서울시는 ‘패밀리 셰프’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과 다르게 요리 활동 이외에도 ‘요리 신문 만들기’, ‘내 자녀를 얼마나 알고 있는가?’ 등의 시간을 통해 부모-자녀 간의 소통방법을 배우고 자녀들의 인성 함양을 돕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가족이 함께하는 활동과 병행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구 특성에 특화된 부모교육의 세부 내용을 개발한다. 가구 특성과 부모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양육환경의 정서적 취약성을 보완하고 바

람직한 양육태도와 양육방법을 지원하는 내용의 부모 맞춤형 부모교육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가정방문과 같은 찾아가는 부모교육을 통해 일상 생활에서의 실제적인 상호작용을 지도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역시 중요하다.

셋째, 교육과 상담, 가구 방문을 적절히 구성한다.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매 회기 부모교육이 진행될 때마다 자녀에 대한 상담과 문제행동 지도에 대한 요청이 있었고, 이에 따라 찾아가는 부모교육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처럼 부모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자녀상담 및 부모 상담을 함께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부모의 실질적인 양육 상황에 개입하여 전반적인 맥락을 파악하고, 즉각적인 문제해결을 돕는 데 있어서 피교육자와 교육자 모두에게 유익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부모교육 방법과 시간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교육에 소요되는 적절한 시간을 조사한 결과, 시간이 길어질수록 선호하는 비율이 낮게 나타나 2시간 정도를 적정 시간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부모교육이 이루어지는 적합한 방식에 대해서는 소규모 워크숍이 54.7%로 가장 높았다. 이는 부모교육에 참여한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한 경향을 보인다. 이론 위주의 강의식보다는 실질적 문제해결과 경험 및 사례 공유, 공감을 통해 치유하고 회복하는 과정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나. 정책적 지원 방안

첫째, 부모교육의 효과와 중요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한다. 본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한부모들은 직장 생활이나 취업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2~3개월간의 부모교육 참여가 어렵다는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참여자 수가 적었다는 한계가 있다. 지역사회와 관계기관의 도움을 받아 부모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홍보하여 참여자 수를 늘리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부모교육 참여 유인책 마련이 필요하다. 부모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가정이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보다 효과적으로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Top-Down 방식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지속가능성이 낮으므로 자발적 동기에 의한 자율적 운영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공동육아나눔터의 가족품앗이 활동과 부모교육을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가족품앗이는 같은 지역이나 이웃에 사는 주민들끼리 육아라는 공통된 고민을 가지고 그룹을 형성하여 자신의 재

능과 물품을 교환하여 자녀양육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학습품앗이, 취미품앗이, 체험활동품앗이, 돌봄(육아 나눔)품앗이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자조모임을 통해 자발적 동기를 견인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지원과 의무 부모교육을 연계한다. 한부모 가정의 경우 가장의 역할과 육아를 병행하기 때문에 경제적 부담과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는 것이 부모교육 참여에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한편 유자녀 재혼 가정은 입양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의무적인 부모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부모교육 사각지대에 놓인 부모들을 대상으로 일부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교육의 최소 시간을 설정하고,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의무 교육시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